

3. 금융안정⁶⁰⁾

금융안정상황 점검⁶¹⁾

가. 거시건전성 분석 및 평가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정책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등 금융안정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 가계 및 기업의 부채 동향, 부동산시장 상황, 금융기관의 건전성 현황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잠재위험요인을 조기경보(early warning)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그간 빠르게 진행되었던 주요국의 통화정책 긴축 등 금융경제 여건 변화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부문별로는 대내외 충격에 취약한 가계 및 기업의 채무상환부담 변화 등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공동검사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과 복원력에 대한 모니터링을 크게 강화하였다. 이 밖에도 기후변화 및 암호자산 등 금융시스템의 중장기적인 환경 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연구도 지속하였다.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높은 물가상승 압력, 주요국의 통화긴축 강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양호한 손실흡수 능력 등에 힘입어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축적된 금융불균형 위험도 축소 조정되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국지적인 단기금융시장의 불안과 자산가격 조정 움직임 등으로 취약부문의 부실 가능성 및 일부 비은행금융기관의 신용·유동성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도 하였다. 단기적인 금융시스템 불안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⁶²⁾(FSI, Financial Stress Index)는 10월 위기단계 임계치(22.0)를 상회하였으나 정부와 한국은행의 시장안정화조치 이후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그간 누증되어 왔던 금융불균형도 완화되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금융시스템 내 잠재취약성을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⁶³⁾(FVI, Financial Vulnerability Index)는 하락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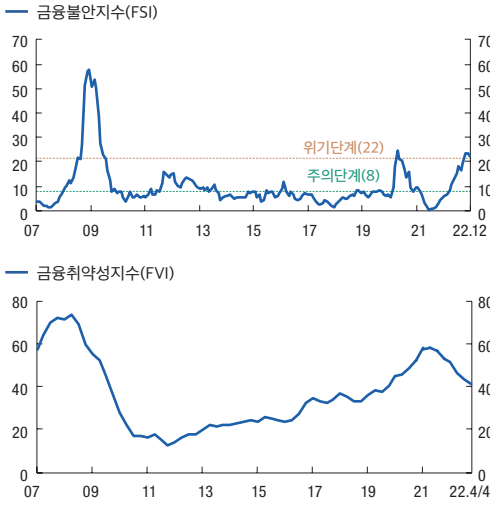
60) 2022년 중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한국은행이 발간하는 「금융안정보고서(반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6월호, 2022년 12월호.

61) 한국은행은 2017년부터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안정 상황을 매 분기 점검하는 금융안정회의를 연 4회 개최하고 있다. 또한 금융안정회의의 관련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기 위해 회의 당일 보도자료 배포 및 기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6월 및 12월 회의에서는 금융안정보고서를 심의·의결한 당일에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62) 금융불안 관련 실물 및 금융부문의 20개 월별 지표를 표준화하여 산출한 종합지수(0~100)로, 금융안정 상황을 정상·주의·위기 단계로 구분한다. 주의 및 위기 단계 임계치는 '잡음/신호(noise-to-signal ratio)' 방식에 따라 각각 8과 22로 설정하였다.

63) 자산가격, 신용축적 등 금융불균형 정도와 금융기관 복원력과 관련된 39개 지표들을 표준화하여 산출한 종합지수(0-100, Min-Max 방식을 이용하여 역사적 최고치를 100, 최저치를 0으로 설정)로, 충격에 대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측정을 통해 중장기적 시계의 금융안정 상황을 판단하는 지수이다. 동 지수의 상승(하락)은 금융불균형 심화(완화), 금융기관 복원력 약화(강화) 등으로 금융시스템의 구조적인 취약성이 심화(완화)되어, 대내외 충격 발생 시 금융경제에 초래될 부정적 영향의 크기가 확대(축소) 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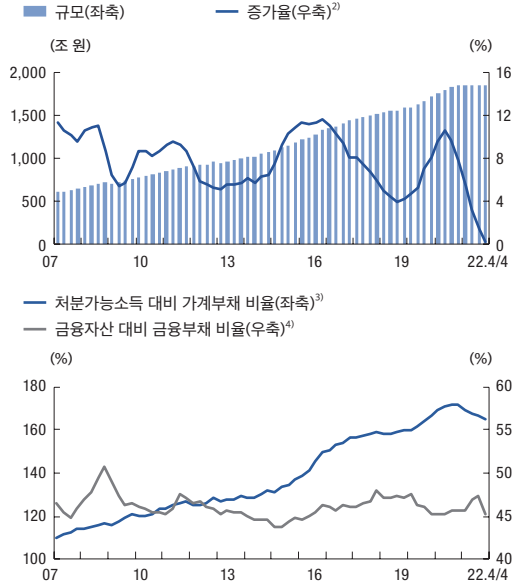
그림 II - 5. 금융불안지수(FSI) 및 금융취약성지수(FVI)



자료: 한국은행

민간부문의 레버리지 수준을 나타내는 민간 신용⁶⁴/명목GDP 비율은 2022년 말 225.1%(추정치)로 전년동기대비 5.7% 포인트 상승하였다. 기준금리 인상 및 대출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가계신용을 중심으로 민간신용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명목GDP 성장세를 상회하면서 오름세를 보였다⁶⁵.

가계 전반의 채무상환부담은 소득 측면에서 보면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하회하면서 소폭 개선되었으며, 최근 들어 자산 측면에서도 자산보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더 크게 둔화되면서 부담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가계대출 연체율⁶⁶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가계부채의 건전성은 양호하였다.

그림 II - 6. 가계신용¹⁾

- 주: 1) 가계신용통계 기준
2) 전년동기대비
3) 분기 자료는 추정치
4) 자금순환통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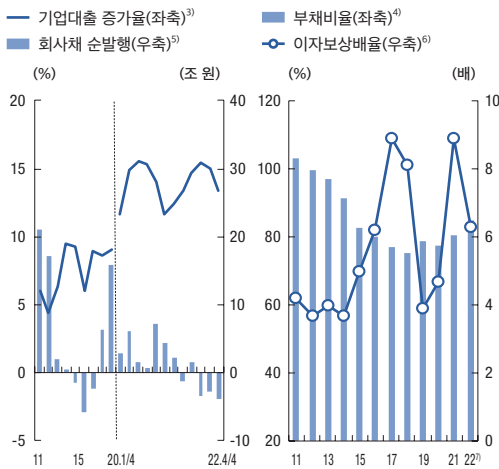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기업신용은 금리상승에도 불구하고 환율 및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설 및 운전자금 수요 증대 등으로 인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기업의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은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총이자비용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저하되었다.

64) BCBS(2010)는 민간신용을 '가계 및 비금융기업에 공급하는 모든 형태의 채무(debt funds)'로 넓게 정의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민간신용 지표는 자금순환통계 기준 가계(대출금, 정부용자) 및 기업(대출금, 채권, 정부용자) 부채의 합을 이용하였다.

65) 2022년 중 민간신용 증가율은 6.5%였으며, 명목GDP 성장률(잠정 기준)은 3.8%였다.

66) 다만 금융기관(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 가계대출 연체율은 2021년 4/4분기 말 0.52%에서 2022년 3/4분기 말 0.60%로 소폭 상승전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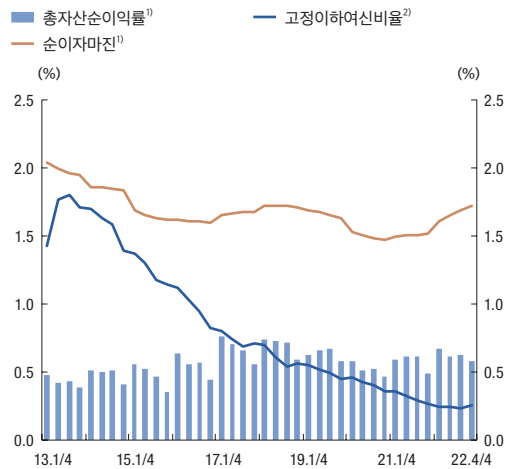
그림 II - 7. 기업신용¹⁾ 및 재무건전성²⁾

- 주: 1) 예금은행(일반은행, 특수은행 및 외은지점) 기업(금융 및 보험업 제외)대출 기준
 2) 사업보고서 공시 상장기업, 일부 비상장기업 등 총 2,392개 기업 대상
 3) 전년동기대비 기준
 4) 부채/자기자본, 기말기준
 5) 2020년(점선) 이전은 연 중, 2020년부터는 분기 중 기준
 6) 영업이익/총이자비용
 7) 3/4분기말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KIS-Value

일반은행은 기업대출 증가, 예금으로의 시중 자금 유입 등으로 자산 증가세가 큰 폭 확대되고 수익성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반면 비은행금융기관은 자산가격 하락, 은행권으로의 자금 이동 등으로 성장성과 수익성이 약화되었다. 한편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은 정부 지원 정책 등에 힘입어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 모두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그림 II - 8. 일반은행 자산건전성 및 수익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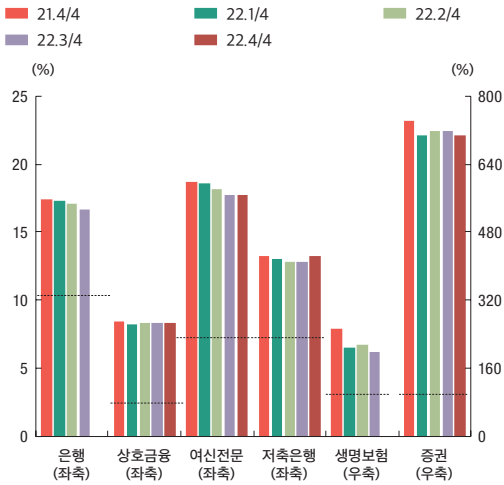
- 주: 1) 누적 분기 실적을 연율로 환산
 2) 기말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금융시스템의 대내외 충격 감내 능력을 나타내는 복원력은 전반적으로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반은행의 경우 손실흡수능력을 나타내는 자본비율과 자금유출에 대한 대응능력을 나타내는 유동성비율이 모두 규제기준을 크게 상회하였다. 또한 비은행금융기관의 복원력도 대부분의 업권에서 자본비율이 감독기준을 충족하는 등 양호한 모습을 나타냈다. 다만 은행권으로의 자금유출, 부동산PF 부실 우려 등이 맞물리면서 시장성 수신에 의존하는 증권회사 및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유동성 리스크가 다소 높아졌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외지급능력은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 등에 따른 외환보유액 감소, 기타 금융기관의 외화증권투자 축소 등으로 순대외채권이 감소해 소폭 저하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림 II- 9. 금융기관¹⁾ 자본비율²⁾³⁾



주: 1) 은행은 일반은행 기준
 2) 은행 총자본비율(감독기준 10.5%, D-SIB은 11.5%), 상호금융조합 순자본비율(2%, 새마을금고는 4%, 농협은 5%), 여신전문금융회사 조정자기자본비율(7%, 신용카드회사는 8%), 저축은행 BIS자기자본비율(7%, 자산총액 1조 원 이상은 8%), 보험회사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100%), 증권회사 순자본비율(100%)
 3) 점선은 감독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시장 변동성 확대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가 초래할 수 있는 금융안정 리스크 요인을 조기에 포착하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기준금리 인상이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부문별로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대내외 충격에 취약한 경제주체들과 연관된 위험요인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선제적인 정책대응 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다. 최근 들어 진정되고 있으나 단기금융시장 불안 등에 취약한 일부 비은행금융기관의 건전성·유동성 상황과 부동산PF 등 자산시장과 연계된 금융의 부실 가능성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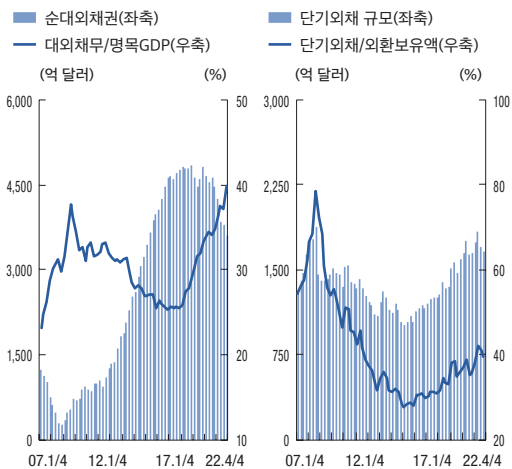
공동검사 수행 및 국내외 금융안정 현안 논의 참여

한국은행은 국내외 통화정책 기조 및 규제환경 변화 등으로 위험요인이 현재화될 가능성을 조기에 포착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취약부문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계기관 간 공조 기능을 크게 강화하였다.

먼저 특정 주제에 대하여 여러 은행을 동시에 검사하는 부문검사를 연중 3회 실시하고, 이를 통해 주요 은행의 가계 및 기업 대출 취급실태, 부실화 가능성 및 이에 대한 은행의 리스크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였다. 특히 금융불균형이 심화된 상황에서 국내외 정책금리 인상 지속, 자산가격 조정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정상화 추진 등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여신의 부실화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주요 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외에도 개별 은행에 대한 종합 리스크 검사를 실시하여 해당

그림 II- 10. 명목GDP 대비 대외채무 비율¹⁾ 및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¹⁾



주: 1) 분기 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국내외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 주요국 금리인상 기조 지속, 금융·외환

은행의 경영상황, 대출 취급실태 및 리스크 요인, 한국은행 규정 준수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아울러 금융기관 경영실태 및 리스크 요인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활동을 적극 수행하는 한편 효과적인 상시 감시 활동을 위해 기업대출 관련 미시데이터 기반을 확충하고 분석시스템도 개선하였다. 한편 금융기관 공동검사 결과를 정부 기관 및 금융감독원에 제공하여 정책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검사결과의 금융기관 앞 설명회를 통해 한국은행 검사업무 수행에 대한 피드백 강화 노력을 지속하였다.

표 II - 6. 은행에 대한 공동검사

(회)

	2018	2019	2020	2021	2022
부문검사	3	4	-	2	3
개별은행 리스크 검사	2	2	2	4	2

자료: 한국은행

이 외에도 한국은행은 각종 국내외 금융안정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요 현안에 대한 정보를 상호공유하고 정책 공조를 지속하였다. 먼저 한국은행은 국내 유관기관 간 「거시경제금융회의⁶⁷⁾」 등을 통해 정부 및 감독당국과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10월 이후 PF-ABCP 및 증권회사 CP에 대한 신용경계감이 확산되는 등 단기금융시장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었을 당시 정부와 한국은행은 시장안정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신속히 대응해 나갔다. 또한 이러한 협의체를 상시화하면서 국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였다.

대외적으로는 국제금융기구의 글로벌 금융안정상황 평가 및 금융규제 수립 등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의 글로벌 금융시스템 취약성 정기 평가, 비은행금융중개(NBFI, Non-Bank Financial Intermediation), 암호자산 등과 관련된 잠재 리스크 분석에도 함께 했다. 또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및 산하 회의체 참여를 통해 바젤Ⅲ 규제개혁 이행 평가 보고서 작성을 완료하였으며 글로벌 은행의 암호자산 익스포저에 대한 건전성 규제안을 마련하였다. 더불어 금융의 디지털화 등 코로나 19 이후 변화하는 금융경제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회원국 간 감독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을 모색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은 은행감독 실무그룹 회원기관으로서 SEACEN(South East Asian Central Bank) 회원국 은행감독국장 회의 및 주요국 감독당국이 주최하는 감독자협의회⁶⁸⁾(Supervisory College)에 참석하여 글로벌 금융감독 현안에 대한 정보 교류 및 정책 공조를 지속하였다.

나.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산 등에 따른 채권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

2022년 중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산,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 움직임 등으로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시장금리 변동성도 크게 확대되었다.

67)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부기관장이 참석하는 협의체로 2012년 7월에 신설되어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를 개최하며 의장은 기획재정부 차관이다.

68) 글로벌 금융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감독을 위하여 본점 소재국과 진출국 금융당국자들이 참가하는 정보공유 및 감독협력 협의체이다.

이에 한국은행은 금리 변동성 확대에 대응한 시장 안정화 조치 차원에서 2월 7일 2조 원, 4월 5일 2조 원, 9월 29일 3조 원 등 세 차례에 걸쳐 총 7조 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3월, 4월 및 9월 중 통화안정증권 발행계획 규모를 직전월 계획 대비 각각 1.3조 원, 2.2조 원, 1.5조 원 축소하였다. 또한 6월 중에는 발행계획 규모를 당초 계획 대비 1.5조 원(6월 13~30일 중, 4.5조 원 → 3.0조 원)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6월 13일)하였다.

안심전환대출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대책

한국은행은 2022년 8월 안심전환대출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1,200억 원을 출자⁶⁹⁾하였다. 동 출자는 금리 상승기에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함으로써 금융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023년 말까지 전환 용도의 특례보증자리론이 원활히 공급될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 비중이 일정 부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안심전환대출 시행 및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증대에 따른 채권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RP매매 대상증권으로 한정되어 있던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MBS를 단순매매 대상증권에 한시적(2022년 9월~2025년 8월)으로 포함하기로 결

정(7월 28일)하였다.

PF-ABCP 부도 사태 이후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한국은행은 PF-ABCP 부도 사태 이후 단기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신용 경계감이 높아지고 그 영향이 채권시장에도 파급됨에 따라 단기금융시장과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11월 1일)하였다.

우선 기존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주공 MBS, 특수은행채⁷⁰⁾ 이외에 은행채 및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을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및 공개시장운영 RP매매 대상증권에 3개월간 한시적으로 포함하였다⁷¹⁾. 동 조치로 국내은행들이 활용할 수 있는 추가 고유동성자산 확보 가능 규모는 최대 29조 원 정도로 추정(2022년 9월 말 기준)하였다⁷²⁾. 이와 함께 2023년 2월부터 예정되어 있던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 비율 인상(70% → 80%) 일정을 3개월간 유예하였다⁷³⁾.

또한 단기금융시장에서의 원활한 자금 순환을 도모하고 일시적 유동성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 증권사, 증권금융 등 한국은행 RP매매 대상기관에 대하여 필요시 RP매입을 한시적(2022년 11월~2023년 1월)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발표(10월 27일)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은 2022년 11~12월 중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2

69) 한국은행은 2004년 공사 설립지원을 위해 3,100억 원, 2012년 고정금리부 가계대출 취급 활성화를 위해 1,350억 원, 2015년 제1차 안심전환대출 공급 지원을 위해 2,000억 원 등 총 6,450억 원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출자한 바 있다.

70) 특수은행채의 경우 기존에는 공개시장운영 RP매매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동 조치로 추가되었다.

71) 2023년 1월 13일 금융통화위원회는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조치의 종료기한을 종전 1월 말에서 4월 말로 3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하였다.

72) 국내 은행들은 한국은행에 은행채 등으로 담보를 납입함으로써 확보하게 되는 국채, 통안채 등의 고유동성자산을 통해 유동성 규제 비율 준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장외외환 파생거래 증거금 추가 납입 등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73) 2023년 1월 13일 금융통화위원회는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 비율 인상 일정을 2023년 8월로 3개월 추가 유예하기로 의결하였다.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상 일정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2장 제5절 나. 감시 및 리스크 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 1,300억 원 규모의 RP매입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연말을 앞둔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자금조달 우려 확산 및 단기금융시장 경색 심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채권시장 안정펀드 출자 금융기관에 대해 각 개별기관 출

자금액의 50% 이내에서 RP매입 방식으로 최대 2조 5천억 원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11월 28일)하였다. 이에 따라 12월 16일 동 출자기관에 대해 총 616억 원 규모의 RP매입을 실시하였다.

표 II - 7. 2022년 중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요약)

구 분	조치 시기	내용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산 등에 따른 채권시장 변동성 확대 대응	■ 국고채 단순매입	2, 4, 9월 실시 - 총 7조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매입	
	■ 통화안정증권 발행 규모 축소	3, 4, 6, 9월 실시 - 3, 4, 9월 중 직전월 대비 각각 1.3조 원, 2.2조 원, 1.5조 원 축소 - 6월 중 당초 계획 대비 1.5조 원 축소	
안심전환대출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대책	■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7월 발표, 8월 실시 - 한국주택금융공사에 1,200억 원 출자	
	■ 공개시장운영 단순매매 대상증권 확대	7월 발표, 2022년 9월 ~ 2025년 8월 적용 -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MBS를 단순매매 대상증권에 한시적으로 포함(기존에는 RP매매 대상으로 한정)	
PF-ABCP 부도 사태 이후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 대상증권 확대 ¹⁾	대출적격 담보증권	- 기존: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신용증권, 주금공 MBS, 특수은행채 ³⁾ - 변경: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신용증권, 주금공 MBS, 특수은행채 ³⁾ , 은행채 ⁴⁾ , 9개 공공기관 ⁵⁾ 발행채권
		차액결제 이행용 담보증권	- 기존: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주금공 MBS, 특수은행채 ³⁾ - 변경: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주금공 MBS, 특수은행채 ³⁾ , 은행채 ⁴⁾ , 9개 공공기관 ⁵⁾ 발행채권
		공개시장운영 RP매매 대상증권	- 기존: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주금공 MBS - 변경: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주금공 MBS, 특수은행채 ³⁾ , 은행채 ⁴⁾ , 9개 공공기관 ⁵⁾ 발행채권
	■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상 계획 연기	10월 발표	- 차액결제 시 결제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던 당초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상(70%→80%) 일정을 3개월(2023년 2월 1일→ 2023년 5월 1일)간 유예 ⁶⁾
	■ 한시적 RP매입	10월 발표, 2022년 11월 ~ 2023년 1월 실시	- 증권회사, 증권금융 등에 대하여 필요시 RP매입을 실시 (2022년 11~12월 중 총 12조 1,300억 원 실시)
	■ 채권시장안정펀드 출자 금융기관에 대한 RP매입	11월 발표, 12월 실시	- 채권시장안정펀드 출자 금융기관에 대해 RP매입 실시 (2022년 12월 중 총 616억 원 실시)

주: 1) 추가된 증권은 밑줄로 표시

2) 2023년 1월 동 조치를 3개월 연장(종료기한: 2023년 1월 31일 → 2023년 4월 30일)

3)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4) 농협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은행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채

5)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예금보호공사

6) 2023년 1월 동 조치를 3개월간 추가 연기(인상 일정: 2023년 5월 1일 → 2023년 8월 1일)

자료: 한국은행

다. 외환시장 안정조치

국민연금과의 스왑거래 실시

한국은행과 정부는 국민연금이 해외투자에 필요한 외화를 국내에서 조달하는 과정에서 외환시장에 수급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민연금과 2022년 말까지 100억 달러 한도로 외환스왑거래(만기 6개월 또는 1년)를 실시하기로 9월 23일 합의하였다. 이러한 스왑거래를 통해 국민연금은 해외투자에 필요한 외화 자금을 거래상대방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은 동 한도 내에서 외환스왑거래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현물환 매입 수요가 완화되면서 외환시장의 수급이 안정화⁷⁴⁾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라. 중층적 금융안전망 확충

아랍에미리트와의 통화스왑계약 연장

글로벌 금융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간 통화스왑 네트워크 확충을 통해 중층적 금융안전망을 강화해왔다. 2022년 4월에는 아랍에미리트(UAE, United Arab Emirates) 중앙은행과 200억 디

르함/6.1조 원(약 54억 달러 상당) 규모의 통화스왑 연장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였다. UAE와의 통화스왑은 양국 간의 교역 증진과 금융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역내 금융안전망 실효성 제고

한국은행은 ASEAN+3 국가들의 다자간 통화스왑협정인 CMIM(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⁷⁵⁾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역내 금융안전망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제3국의 역내통화 자금지원 절차를 마련하여(2023년 1월 발효)⁷⁶⁾ 유사시 역내통화를 통한 자금지원이 더욱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CMIM-PL⁷⁷⁾의 갱신 허용기준을 완화하여 자금지원 절차를 개선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은 실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대비한 제13차 CMIM 모의훈련⁷⁸⁾에 참여하여 역내 금융위기 발생 시 회원국 간 자금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능력을 점검하였다.

74) 정부는 외환시장 수급의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과의 스왑거래 외에도 조선업체의 선물환 매도를 지원하고, 국민연금, 공제회 등 공적 기관투자자들이 환헤지를 늘리거나 신규 해외투자의 속도를 조절하도록 유도하였다.

75) ASEAN+3 국가는 CMI의 양자간 스왑계약(bilateral swap agreement)의 위기대응능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2010년 3월 CMI를 다자화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를 출범시켰다.

76) 2021년에 자금지원국이 미달러화 외에 자국통화(역내통화)로도 자금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자국통화국의 역내통화 자금지원 절차를 마련하였고, 2022년 중에는 제3국의 역내통화 자금지원 절차를 논의하여왔다.

77) CMIM의 자금지원 제도는 잠재적 위기 상황에서의 위기에방 제도인 CMIM-PL(CMIM Precautionary Line)과 실제 위기 발생 시의 위기해결 제도인 CMIM-SF(CMIM Stability Facility)로 구성되어 있다.

78) 2022년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실시되었고, 금번 제13차 모의훈련은 IMF 非연계대출을 IMF 연계대출로 전환하는 과정을 주로 테스트하였다.

표 II - 8. 우리나라의 통화스왑 체결 현황

구분	체결 국가	규모 (미 달러 ¹⁾ 기준)	최근 체결 연장일	만기
양자간 통화 스왑	캐나다	사전한도 없음	2017년 11월	없음
	중국	4,000억 위안/70조 원 (약 590억 달러 상당)	2020년 10월	2025년 10월
	스위스	100억 프랑/11.2조 원 (약 106억 달러 상당)	2021년 3월	2026년 3월
	인도네시아	115조 루피아/10.7조 원 (약 100억 달러 상당)	2020년 3월	2023년 3월
	호주	120억 호주달러/9.6조 원 (약 81억 달러 상당)	2020년 2월	2023년 2월
	UAE	200억 디르함/6.1조 원 (약 54억 달러 상당)	2022년 4월	2027년 4월
	말레이시아	150억 링깃/5조 원 (약 47억 달러 상당)	2020년 2월	2023년 2월
	튀르키예	175억 리라/2.3조 원 (약 20억 달러 상당)	2021년 8월	2024년 8월
CMIM 지역 금융 협정	ASEAN+3 13개국 및 홍콩	384억 달러 ²⁾	2014년 7월	—

주: 1) 최초 또는 규모 확대 체결 시 환율기준

2) CMIM 총 재원은 2,400억 달러이며 우리나라의 수혜 및 분담 규모는 각각 384억 달러(16%)

자료: 한국은행

마. 금융불안 요인 발생 시 비상대응체제 가동

한국은행은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국내외 금융불안 요인 발생 시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여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상황과 금융·외환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였다.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 예상치를 상회한 미 물가지표 발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던 시기에는 「통화금융대책반⁷⁹⁾」에서 「시장상황 점검회의」 등을 개최하여 금리, 주가, 환율 등 가격변수의 움직임과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다. 아울러 시장의 불안심리가 과도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시장안정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였다.

QR BOX



QR 1

금융안정보고서
웹페이지

79) 부총재를 반장으로 하여 통화정책 및 금융·외환시장 관련 부서장 등으로 구성되며, 국내외 금융불안 요인 발생 시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